

가족관계에 따른 노년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Adjustment of Elderly Women according to Family Relations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강 주 령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 명 자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
Graduate School Student : Kang, Joo Ryung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 : Kim, Myung Cha

〈目 次〉

- | | |
|------------------------|--------------------|
| I. 서 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노년기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1. 노년기 적응의 일반적 경향 |
| 1. 가족 관계와 노년기 적응 | 2. 배경변인에 따른 노년기 적응 |
| 2. 일반적인 배경변인과 노년기 적응 | 3. 가족관계에 따른 노년기 적응 |
| III. 연구방법 | 4.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
| 1. 연구문제 | V. 요약 및 결론 |
| 2. 조사도구의 선정 및 작성 | 참고문헌 |
|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mily relations of the Elderly influencing adjustment of the Elderly.

The Sample was selected from elderly women who are older than 65years living in Seoul. Total sample consisted of 324 elderly women(married women 155, widow 169) finally selected datum sources.

Factor analysis,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ile,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take statistic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core of the adjustment of urban elderly woman was normal.
2. General characteristic variables such as age, self-reported health, financial status and supply of living expenses have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on the adjustment of the elderly women.
3. General satisfaction of married life, among the subordinate dimensions of the aging Couple relationships, has influence of the adjustment of the elderly women.
4. Among the old parent-Adult children relationships, subjective solidarity and consensual solidarity have influence on the adjustment of the aged. Besides the above two solidarity, objective solidarity has influence on the adjustment, in the case of widow.
5. Among the grandmother-grandchildren relationships, discipliner relations and material provider relations have influence on the adjustment of the married old women. Besides the above two solidarity, surrogate parenting relation have influence on the adjustment, in the case of widow.

I. 서 론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사회와 상호영향을 받으면서 변화, 발전되어가고 있다. 특히, 노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1차적인 환경으로 노인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중간적 역할을 수행하고 노인부양, 보호의 기능을 갖는 집단이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김수연, 1987). 즉, 가족은 노인을 위한 사회적 통합, 재정적 지원, 육체적 보호의 근본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Sussman, 1977). 오늘날의 노인들은 전통적 가치의식이 변화되어가는 과도기에서 노인 자신과 젊은이들의 의식의 차이에서 많은 갈등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노인들의 갈등은 노인 자신이 처하고 있는 가족집단내에서 권력의 약화와 역할상실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지옥순, 1979:319). 또한, 핵가족 추세가 점차 보편화됨으로서 젊은세대가 노부모와의 동거를 기피하는 추세가 높고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부부가 함께 노후를 보내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고, 모든 자녀의 성장, 독립은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보다 친밀한 관계로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 더욱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사회·심리적 적응과 행복감이 높다(Lopata, 1973)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노년기

적응과 밀접히 관련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은 부부 중심보다는 자녀를 중심으로한 가족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 성인자녀와의 정서적인 상호 친밀감은 물론 개인이 갖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양세대 모두 만족스러운 질적관계를 가질 것이며, 노부모들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생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박경관, 1988:22). 그러므로, 노부모의 사기, 행복감에는 성인자녀의 기여가 중요하다(Mancini & Blieszer, 1989; Brubaker, 1990, 967에서 재인용)는 것을 알수 있다. 조부모는 손자녀에 대하여 권리나 책임도 없고 순수하게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가장 우호적이고 밀접하게 맺어지는 관계이며, 무엇보다 손자녀는 조부모의 여생에 많은 만족을 주고있다(정경숙, 1978:31). 결국, 노인은 조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통해 정서적 만족을 얻을수 있다. 이와같이 노년기 부부관계, 노부모-성인자녀관계, 조부모-손자녀관계를 중심으로한 가족관계가 노인에게 의미가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고찰이 부족한 현실에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한 노년기 적응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점차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평균수명이 더 높다는 것은 여자노인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노인의 노년기 적응 수준을 파악하고, 노년기 부부관계, 노모-성인자녀관계, 조모-손자녀관계를 중심으로한 노년기 가족관계가 노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노년기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노년기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관계와 노년기 적응

1) 노년기 부부관계

노년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부부관계가 중요시되는 시기이다.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 부부관계는 그 이전의 부부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가족생활주기와 연령을 중심으로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족생활주기와 연령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변화하는데, 이에대한 관점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즉, 신희초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다가 차츰 증가하여 U자형을 나타낸다는 관점(Rollins & Cannon, 1974)과 신희초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점차 계속 낮아져 탈부모기에는 아주 낮은 만족도를 형성하여 커브(∪)형을 나타낸다는 관점(Lee, 1977)이 있다. 한편, 결혼만족도는 가족생활주기와 연령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김은숙, 1983)도 있다. 결국,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부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다른 생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결혼한 여성의 전체적인 행복감은 그들 자녀가 가정을 떠날때 크며(Glenn, 1975), 이러한 높은 수준의 결혼만족은 노인부부의 전체적인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Atchley, 1988:137~138). 한편, 노부부들은 가사일에 평등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적인 성역할의 규범이 유연해지고, 서로 의존하게 되며, 안정을 느끼게 된다(Atchley, 1988:152~153). 또한, 배우자의 은퇴는 노부부가 자신들의 생활방식이나,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앞으로의 재정적인 면에

서의 계획수립등으로 새로운 적응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Duvall, 1985:316). 이와 같이 노년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부부간의 친밀감이 증대될 수 있는 시기이지만, 한국가족의 경우 부부중심의 생활보다는 자녀중심의 생활임을 고려해 볼 때, 자녀들이 독립해 나간뒤의 부부관계는 새로운 조정이 요구된다.

2) 노부모-성인자녀 관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효를 중시하고 부모에 대한 복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으며, 노부모의 부양은 당연히 자식됨의 도리로 여겨져 왔으나, 점차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에대한 보답이나 댓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로서는 노후에 사회·경제적으로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경애, 1990:17). 한편, 성인자녀가 자신의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에 대하여 막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노부모의 요구에 대하여 괴로움이나 소홀함을 표면화할수도 있고, 이로인해 노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송현애, 1986:21~22). 그러나, 노후생활에서 경제적 안정이나 건강유지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성인자녀와의 관계이다(Streib & Beck, 1980:205~224). Bengtson(1976)은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관계를 객관적 유대, 주관적 유대, 합의적 유대 등 3개의 유대관계로 파악했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유대관계는 노부모의 사기, 행복감과는 관련이 없다고도(Lee & Ellit-hrope, 1982; Markids & Krause, 1985) 하지만,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애정, 의사소통, 부양만족, 가치관의 일치등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이 높다(Quinn, 1983)고 한다. 특히, 세대간의 객관적인 유대가 노부모-성인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나(박경란, 1988:100), 여러연구에서 질적인 관계가 적응에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노부모가 성인자녀보다 더욱 애정적 유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Medly, 1977:448~454), 성인자녀와 주관적 유대가 원활할수록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서병숙, 1989:147, Streib & Beck, 1980), 정서적 교류도 노년기의 생활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장선주, 1989:17). 결국, 노부모-성인자녀관계는 일상적인 만남, 도움등 객관적 유대도 중요하나, 주관적, 합의적 유대의 측면에 의해 노년기 적응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부모-손자녀 관계

현대와 같이 사회변동 속도가 급속한 경우에는 세대간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나 조부모는 손자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손자녀와의 따뜻한 교류를 계속 바라고 있다(박루미, 1988:11). 따라서, 노년기에 조부모로서의 역할획득이란 노인에게 중요한 생활사건이 될 수 있다.

노인들은 손자녀의 양육, 책임에 대한 필요성을 의식하고, 조부모 역할을 중요시하며(조석미, 1980), 조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박루미, 1986). 더욱이 조부모는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생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생의 의미를 갖게되고 생산성이라는 성취감을 갖게 해주며, 노인들의 생활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ornhaber 1985: Kivnick, 1982: Robertson, 1977, 서동인 1989, 46에서 재인용). 또한,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개인적 상실과 배우자 상실을 경험한다고 해도, 조부모의 역할을 인식하고 조부모의 역할에 참여하는 노인이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다(Barranti, 1985: 349). 결국, 조부모가 손자녀와 가깝고 뜻있는 접촉을 하는것은 노년기에 가치있는 과업이 될 수 있고(Duvall, 1985:326) 손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역할획득은 물론 정서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다.

조부모-손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부모의 성별, 연령, 부모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모가 조부보다 조부모 역할에 대해 높은 수준의 만족을 나타내며, 손자녀의 훈육이나 손자녀를 도와주는데 대한 책임감에는 성별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Thomas, 1986a:216~219). 연령에 따라서는 젊은 조부모가 늙은 조부모보다 손자녀의 양육, 충고, 훈육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Thomas, 1986b:420). 또한,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는 조부모와의 유대를 형성하도록 돕는 부모의 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서동인, 1989: Matthews, 1985:623~624).

2. 일반적인 배경변인과 노년기 적응

1) 연령

연령은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연령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보다는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적응과 관련이 된다(김수연, 1987:김선희, 1989).

2) 건강상태

노년기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개인·사회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이 좋을수록 세대간의 유대관계도 높다(최혜경, 1984: 박계범, 1985: 박경란, 1988). 그러나, 실제상의 건강상태 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에 대한 만족이 노년기 적응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Edwards, 1973).

3) 경제상태

소득의 상실은 노인들로 하여금 제한된 기회를 갖게 하고, 노년기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Keith, 1979). 그러나, 노인 스스로가 느끼는 경제적 만족도도 중요하다(Medley, 1979). 결국, 노년기의 경제상태는 실제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가 지각하는 경제적 만족도도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4) 사회참여활동

우리나라 노인들은 이웃, 친구와의 교류가 많고,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이웃, 친구와의 관계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형욱, 1987). 이러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수준, 이웃과의 교류와 접촉은 노인의 복지감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다(Champion, 1982:237~244). 즉, 사회관계가 원만하고 잘 유지하는 노인이 자녀에게 덜 집착하게 되어 자신의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최혜경, 1984:37~40),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노인이 참여하지 않는 노인보다 노년기 적응이 높다(Bull & Aucoin, 1975).

5) 동거형태

일반적으로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이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노인보다 노년기 적응수준이 높음에 (최은영, 1981), 자녀의 성별,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노인이 동거하고 싶은 자녀는 장남이지만 실제 노년기 적응은 딸내외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이 높다(유영숙, 1985:52~53)고 한다. 그러나, 자녀와의 동거 유무는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김종숙, 1987; 김선희, 1989)도 있다.

6) 배우자 유무

배우자의 죽음은 노년기의 공통적인 문제이며(유영주, 1979:266), 여자노인의 경우 배우자를 상실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혼란, 고독감의 문제, 마음을 맡기고 의지할 인물의 상실을 의미한다. 특히, 노부부가 서로간에 감정적으로 의존을 많이 해 왔을수록 남편의 사망후에 고독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윤진, 1978:266). 즉, 배우자의 사망은 여자노인에게 경제적 위협, 아내로서의 역할상실등으로 인해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Gordan, 1978).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생활에 만족하고 사기(士氣), 심리적 적응이 높다(김명자, 1982: 정유희, 1988)고 한다. 그러나, 배우자 유무는 노년기 적응과 상관이 없다는 결과(김태현, 1986)도 있어 배우자 유무가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양론이 있다. 즉, 노년기에 있어서 배우자의 상실은 노인에게 상실감과 고독감을 야기시키는 반면에, 가족과의 유대관계는 더욱 강화될수도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자노인의 노년기 적응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여자노인의 노년기 적응은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3] 여자노인의 노년기 적응은 노년기 가족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4] 여자노인의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선정 및 작성

1) 노년기 적응에 관한 척도

Lawton(1975)의 'The Philadelphia Morale Scale'을 모체로 하여 노년기 적응을 측정할 수 있으리라 보이는 17개 문항을 1차로 선정하였다. 이 17문항으로 된 가척도를 가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 조사와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10 문항이 선정되었다. 문항의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최하 1점, '정말 그렇다'에 최고 5점을 주어, 각 개인의 노년기 적응 총점수의 가능한 범위는 10점에서 5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노년기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2) 노년기 부부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 노년기 부부관계는 노년기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Roach(1981)의 도구를 기초로 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번역, 수정하여 타당화 연구를 실시한 이연주(1986)의 척도, Hays & Stinnett(1976)의 'Middle Years Life Satisfaction'을 모체로 한 김명자(1977)의 척도 그리고 Spanier(1976)의 척도를 기초로한 윤명희(1985)의 척도를 모체로 하여 본 연구의 성격에 부합되는 21문항을 선정하였다. 21문항의 가척도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 조사와 문항분석을 실시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20문항이 선정되었다. 20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적재치와 커뮤날리티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3문항이 채택되었다. 총 13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제1요인에는 전반적인 만족, 제2요인에는 동료감, 제3요인에는 존중감, 제4요인에는 여가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방식은 5점 Likert척도로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을 때 '정말 그렇다'에 5점, 만족하지 못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총점수의 범위는 13~6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이 높음을 나타낸다.

3) 노모-성인자녀 관계 척도

노모-성인자녀 관계는 노모와 결혼한 성인자녀의 가족내 유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Bengton & Cutler(1976)의 척도를 모체로 작성한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가척도를 가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4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11문항을 선정하였다. 11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3개의 요인에서 제1요인은 주관적 유대, 제2요인은 객관적 유대, 제3요인은 합의적 유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각 개인의 노모-성인자녀간의 유대관계 총점수의 가능한 범위는 11~5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모-성인자녀간의 유대관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조모-손자녀 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 조모-손자녀 관계는 조모가 손자녀에게 행하는 역할 형태에 따른 만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중심으로한 서동인(1989)의 척도를 모체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작성된 가척도는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 조사와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23문항이 채택되었다. 이들 23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제1요인은 물질적 제공자 관계, 제2요인은 훈계자 관계, 제3요인은 대리모 관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조모가 손자녀에게 수행하는

역할은 가족의 전통을 이어주는 가계 계승자의 역할, 친구로서의 역할, 성인자녀와 손자녀를 연결시켜주는 교량적 역할등 여러 역할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의 3요인으로 조모-손자녀 관계를 파악했다. 이들 23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손자녀에 대한 역할수행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5점, 매우 불만족할 경우는 1점을 주므로서, 총점수의 가능한 범위는 21~10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모가 손자녀에게 행하는 역할의 만족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각각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1명 이상의 기혼의 성인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65세 이상의 여자노인들을 선정하였다. 1차로 작성한 가척도를 가지고 88명의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1990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의 언어구조등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1990년 7월 16일부터 8월 21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총 36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340부가 회수되었으나, 내용기재가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총 324부(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 155부,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 169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삼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1>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		문항수	신뢰도 계수	하위영역별 문항수 및 신뢰도		
종속변인	노년기 적용	10	.74	하 위 영 역	문항수	신뢰도 계수
독 립 변 인	노년기 부부관계	13	.86	전반적인 만족	4	.86
				동료감	4	.78
				존중감	2	.78
				여가활동	3	.60
	노모-성인자녀 관계	11	.71	객관적 유대	4	.62
				주관적 유대	4	.65
				합의적 유대	3	.61
	조모-손자녀 관계	21	.87	훈계자 관계	10	.91
				물질적제공자 관계	7	.95
				대리모 관계	4	.85

자료분석은 측정도구 작성을 위하여 신뢰도, 문항 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각각의 연구문제에 적용된 분석방법은 전체평균, 표준편차, t-test, F-test, 사후검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 피어슨 적률상관분석과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적용했다. 이상의 분석은 SAS Program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24)

변인	집 단	빈도	백분율(%)
연령	65~69세	98	30.2
	70~74세	97	29.9
	75~79세	67	20.7
	80세 이상	62	18.6
	학력	무 학	209
	국 졸	101	31.2
	중 . 고등학교 졸	14	4.3
건강상태	건강하다.	78	24.1
	아픈데는 없으나 건강하지 못하다.	95	29.3
	자리에 눕지는 않으나 지병이 있다.	94	29.0
	자리에 눕는 일이 많다.	57	17.6
	경제상태	도움에 의해 생계유지	240
	어느정도 도움을 받는다.	55	17.0
	현재는 해결, 후의 도움필요	21	6.5
	생존시까지 자립 가능	8	2.5
생활비	일을 해서 번다.	6	1.9
	퇴직금을 활용한다.	12	3.7
	저금한 돈을 이용한다.	21	6.5
	재산소득에 의존한다.	30	9.3
	자녀들이 대준다.	255	78.7
사회	이웃과의 교류	168	51.9
	교류	73	22.5
	교류	23	7.1
	교류	14	4.3
	교류	46	14.2
사회	친구와의 교류	185	57.1
	교류	57	17.6
	교류	27	8.3
	교류	28	8.6
	교류	27	8.3

변인	집 단	빈도	백분율(%)	
활동	단체 활동 참여 수	0 개	136	42.0
		1 개	109	33.6
		2 개	65	20.1
		3 개	13	4.0
		4 개	1	0.3
활동 참여 정도*	단체 활동 참여	언제나 참여한다.	76	40.4
		때때로 참여한다.	70	37.2
		드물게 참여한다.	42	22.3

변인	집 단	빈도	백분율(%)
종교	기독교	91	28.1
	불교	100	30.9
	천주교	56	17.3
	기타	7	2.2
	무교	70	21.6
동거 형태	혼자서 산다.	13	4.0
	우리 부부만 산다.	22	6.8
	장남부부와 함께 산다.	159	49.1
	장남이 아닌 부부와 산다.	77	23.8
	딸 부부와 함께 산다.	39	12.0
배우자 유무	미혼의 자녀 또는 손자녀와 산다.	9	2.8
	친척이나 다른 사람과 산다.	5	1.5
	유무	155	47.8
	유무	169	52.2

*단체활동 참여정도는 단체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만 응답토록 했다.

IV. 결과 및 해석

1. 노년기 적응의 일반적 경향

노년기 적응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한 것이 〈표 3〉이다.

이에 의하면, 노년기 적응 변인의 평균은 30.23으로 나타나 노년기 적응의 범위가 10점에서 50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응답자들의 노년기 적응은 그리

〈표 3〉 노년기 적응의 평균, 표준편차

(n=324)					
	평균	표준편차	최빈치	중앙치	범위
노년기 적응	30.23	6.25	29.00	30.00	10-50

높다고는 볼 수 없다. 조사대상자의 약 50%가 30점에서 5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중간 점수대에 있어(최빈치=29.00), 전체적으로 볼 때 노년기 적응의 수준은 보통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자노인의 노년기 적응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배경변인에 따른 노년기 적응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의 규명을 위하여 변인별로 분석한 것이 〈표 4〉이다.

1) 연령

연령에 따른 노년기 적응은 $p < .05$ 수준에서 의미하는 차이를 보였다. Duncan test 결과, 75세 이상의 여자노인이 노년기 적응 수준이 높은 것은 74세 이하의 여자노인보다 좀 더 일찍 막내자녀가 성장, 독립해 나감으로서 노부부 혹은 홀로 남게되는 시기를 먼저 경험했으므로, 이로인한 상실감이나 고독감을 어느 정도 이겨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2) 건강상태

건강상태에 따른 노년기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 모두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즉,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노인일수록 노년기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수연(1987)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건강은 노인의 생활환경의 요인중에서 노년기 적응과 밀접히 관련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Quinn, 1983).

3) 경제상태와 생활비 조달

여자노인의 경제상태와 생활비 조달을 관련지어

분석한 결과, 두 변인 모두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경제적으로 자녀에 의해 도움을 받는 노인이 노년기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이 노년기 적응 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한임섭, 1987:12에서 재인용)와는 다른 결과이다.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가 대체로 원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것이 결국 노년기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다.

4) 사회활동

여자노인들의 사회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웃과의 교류, 친구와의 교류, 사회단체참여수와 참여정도 등으로 분류하여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활동이 대인 관계면에서 보다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5) 동거형태

사회활동과 마찬가지로 동거형태도 노년기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종숙(198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보다 노년기 적응수준이 높고(최은영, 1981), 대부분 노후를 장남내외와 보내려는 의식이 있는 것에 비해 딸내외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이 노년기 적응이 높다는 연구결과(유영숙, 1985)도 있음을 볼 때, 이에 대한 연구는 좀 더 고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유무 역시 유의미한 수준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김태현, 1986)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배우자 상실이 심리적으로 위축과 고립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가족과의 계속적인 유대가 있기 때문에 노년기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임미숙, 1985)할 수 있다. 또한, 부부중심의 생활보다는 자녀중심의 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여자노인들의 생활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인다.

〈표 4〉 일반적인 배경변인에 따른 노년기 적응

일반적 특성	집 단	빈도	평균점수	검 증	Duncan's
연 령	65~69세	98	32.34	F=2.88*	B
	70~74세	97	32.34		B
	75~79세	67	34.87		A
	80세 이상	62	34.54		AB
건 강 상 태	건강하다.	78	35.53	F=5.23**	A
	아픈데는 없으나 건강하지 못하다.	95	32.89		BC
	만성적인 질병이 있다.	94	33.33		AB
	자리에 누는 일이 많다.	57	30.69		C
경 제 상 태	도움에 의지한다.	240	33.77	t=2.17*	
	스스로 생존 가능하다.	84	31.90		
생활비 조달	기타 소득(저금, 재산소득)에 의존한다.	69	31.35	t=-2.46*	
	자녀에 의한 도움	255	33.77		

* p<.05 ** p<.01

*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노년기 적응에 있어서 사회활동, 동거형태, 배우자 유무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표 4〉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3. 가족관계에 따른 노년기 적응

1) 노년기 부부관계와 노년기 적응

노년기 부부관계를 4개의 하위영역(전반적인 만족, 동료감, 존중감, 여가활동)으로 나누어 노년기 적응간의 피어슨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높을수록 노년기 적응과 의미있는 정적상관(p<.01)을 보였다.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동료감이나 존중감, 여가활동등이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현재의 노인세대가 부자(父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직계가족을 중요시하므로 부부관계보다는 성인자녀가 손자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2) 노모-성인자녀 관계와 노년기 적응

노모-성인자녀관계와 노년기 적응간의 상관관계를 배우자 유무에 따라 산출하여 그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적 유대(p<.001)와 합의적 유대(p<.001)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 유대(p<.05), 주관적 유대(p<.001), 합의적 유대(p<.001)가 높을수록 노년기 적응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Quinn(1983)이 언급한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노인생활의 심리적인 만족이 높다는 견해와 일치하고 있

다. 특히, 객관적 유대는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경우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허전함을 성인자녀와의 일상적인 방문, 접촉으로 보충하려는데에서 온 결과라고 사료된다.

3) 조모-손자녀 관계와 노년기 적응

배우자 유무에 따라 조모-손자녀 관계와 노년기 적응간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훈계자 관계(p<.001)와 물질적 제공자 관계(p<.001)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훈계자 관계(p<.001), 물질적제공자 관계(p<.001) 그리고 대리모 관계(p<.05)가 노년기 적응과 의미있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손자녀에 대한 대리모 관계가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을 손자녀에게 부모로서의 대리역할을 함으로써 대체하려는 데에서 온 것이라 사료된다.

4.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노년기 적응에 대한 관련변인들(일반적 특성변인, 노년기 부부관계, 노모-성인자녀관계, 조모-손자녀관계)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년기 적응에 대해 단계적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표 5〉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의 경우 노년기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합의적 유대가 높을수록, 손자녀에 대한 물질적 제공자 관계에 만족할수록 그리고 성인자녀와의 주관적 유대가 높을수록 노년기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의 변인에 의해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의 노년기 적응은 30%정도가 설명된다.

〈표 5〉 노년기 적응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배우자가 있는 경우)

(n=155)

종속변인 : 노년기 적응				
독립 변인	B	β	Partial R ²	R ²
합의적 유대	.277	.307***	.172***	.172
물질적제공자관계	.247	.296***	.102***	.275
주관적 유대	.144	.175*	.027*	.301
회귀상수	.827			
R ²	.301			
전체 F 값	21.71***			

* p<.05 *** p<.001

결국,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관계(전반적인 만족, 동료감, 존중감, 여가활동)보다는 성인자녀와의 주관적 유대와 합의적 유대 그리고 손자녀에 대한 물질적 제공자 관계가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자노인이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부부중심보다는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경우, 관련변인들이 노년기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결과가 〈표 6〉이다. 이에 의하면 합의적 유대, 훈계자 관계, 연령, 건강상태, 이웃과의 교류, 주관적 유대의 순으로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합의적 유대가 높을수록, 손자녀에 대한 훈계자 관계에 만족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이웃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주관적 유대가 높을수록 노년기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변인에 의하여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노년기 적응은 37%정도가 설명된다.

〈표 6〉 노년기 적응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배우자가 없는 경우)

(n=169)

종속변인 : 노년기 적응				
독립 변인	B	β	Partial R ²	R ²
합의적 유대	.133	.168*	.133***	.133
훈계자 관계	.232	.203**	.070***	.203
연령	.032	.309***	.057***	.260
건강상태	.148	.249***	.052***	.311
이웃과의 교류	.099	.208**	.038**	.349
주관적 유대	.135	.172*	.021*	.371
회귀상수	-1.850			
R ²	.371			
전체 F 값	15.89***			

* p<.05 ** p<.01 *** p<.001

즉,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과 마찬가지로 성인자녀와의 주관적, 합의적 유대가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손자녀와의 관계에서는 훈계자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외에, 연령, 건강상태와 이웃과의 교류도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에 비해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노년기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는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성인자녀 관계중에서 주관적·합의적 유대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적응에는 여러가지 변수(연령, 건강, 이웃과의 교류등)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들의 노년기 적응과 관련지어 노년기 부부관계, 노부모-성인자녀관계, 그리고 조부모-손자녀 관계등 노년기 가족관계를 파악하여 현대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은 물론, 노년기 가족관계 및 적응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인 배경변인, 노년기 가족관계변인을 독립변인으로하고, 노년기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한 뒤 제반 측정도구를 작성하여 실증적 연구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여자노인의 노년기 적응 수준은 보통정도라고 할 수 있다.

2) 노년기 적응에 관련된 배경변인의 탐색에 있어서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경제적으로 자녀에 의해 도움을 받는 여자노인이 노년기 적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노년기 가족관계가 노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년기 부부관계는 4개의 하위영역(전반적인 만족, 동료감, 존중감, 여가활동)중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노년기 적응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노인의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가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노모-성인자녀 관계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은 주관적 유대와 합의적 유대가,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은 주관적, 합의적, 객관적 유대가 노년기 적응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조모-손자녀 관계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은 훈계자 관계와 물질적 제공자 관계,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은 훈계자 관계, 물질적 제공자 관계, 대리모 관계가 노년기 적응과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결국, 노년기 가족관계는 노년기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노년기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은 성인자녀와의 합의적 유대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은 손자녀와의 물질적 제공자 관계, 성인자녀와의 주관적 유대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은 합의적 유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훈계자 관계, 연령, 건강, 이웃과의 교류, 주관적 유대의 순으로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즉,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 보다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 및 제한점을 밝히고자 한다.

1) 성인자녀, 손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노년기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노인들의 적응에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때 성인자녀와의 관계, 손자녀와의 관계가 보다

질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0%,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37%로 나타난 것은 노년기 적응을 어느정도 설명해 주고는 있으나, 다른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년기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의 연구개발이 요망된다.

3) 본 연구에서 노년기 부부관계를 결혼만족도로만 파악했기 때문에 이외의 관련특성에 대한 연구가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노모-성인자녀 관계에서 성인자녀의 출생순위,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노모-성인자녀의 전체적인 관계로 일반화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손자녀 관계에서도 손자녀의 특성(성별, 연령, 출생순위, 친손, 외손)을 명확히 고려할수 없었다.

【참고문헌】

- 1) 고경애, "한국청소년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1990.
- 2) 김명자,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77.
- 3) ———,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 : 3, 1982, 45~54.
- 4) 김선희,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노인의 자기 보고식 측정을 중심으로 —, 성신여대석사학위논문, 1989.
- 5) 김수연, "도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석사학위논문, 1987.
- 6) 김은선, "노후 안정을 위한 청장년의 준비의식", 성신여대석사학위논문, 1983.
- 7) 김은숙,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명여대석사학위논문, 1983.
- 8) 김종숙,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대박사학위논문, 1987.
- 9) 김태현,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연구", 성신여대성신연구논문2집, 1986. 181~199.

- 10) 박경란,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 — 장남 부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고려대석사학위논문, 1988.
- 11) 박계범, “노인의 가정내의 역할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1985.
- 12) 박루미, “노년기 역할변화에 대한 만족도 연구”, 성신여대석사학위논문, 1986.
- 13) 배경미, “조부모 역할에 관한 기초연구”, 성균관대석사학위논문, 1988.
- 14) 서동인,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손자녀와의 접촉과 조모의 역할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 : 2, 1989, 45~60.
- 15) 서병숙,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 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27 : 2, 1989, 133~148.
- 16) 송현애,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석사학위논문, 1986.
- 17) 유영숙, “자녀와의 동·별거에 따른 노인문제 연구”, 한양대석사학위논문, 1985.
- 18) 유영주, 가족관계학, 서울 : 수학사, 1979.
- 19) 윤명희, “도시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한양대석사학위논문, 1985.
- 20) 윤진,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78.
- 21) 이연주, “결혼만족도의 타당화 연구”, 경희대석사학위논문, 1986.
- 22) 임미숙, “도시 노인의 노인정 참여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1985.
- 23) 장선주,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생활감정 및 교류 — 아들 동거노인과 딸 동거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89.
- 24) 정경숙, “우리나라 가정에서 본 노인생활의 실태조사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1978.
- 25) 정용희, “주거형태 및 가족관념과 노년기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고려대석사학위논문, 1988.
- 26) 조석미, “조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노년층의 의식구조” — 대구시 중류층 노인을 중심으로 —, 영남대석사학위논문, 1980.
- 27) 조형옥, “한국노인의 심리·사회적 활동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1987.
- 28) 지옥순, “현대가족의 노인문제에 관한 소고”, 동래여전 논문2집, 1983, 334~342.
- 29) 최은영, “노년기 생활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중대석사학위논문, 1981.
- 30) 최혜경,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1984.
- 31) 한임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경제활동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 이대석사학위논문, 1987.
- 32) Atchley, R.C., *Social forces and Aging*, Wadsworth Publishing Co. Belmont, California, 1988.
- 33) Barranti, C.R.,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Family Resources in an Era of Voluntary Bonds”, *Family Relations* 34, 1985, 343~352.
- 34) Bengtson, V.L. & Cutler, N.E., “generations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R.H. binstock (Ed), *The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76.
- 35) Brubaker, T.H., “Families in Later Life: A Burgeoning Research Area”,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2, No.4, 1990, 959~981.
- 36) Bull, C.N. & Aucoin, J.B.,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A Replication Note”, *Journal of Gerontology* vol.30, No.1, 1975, 73~76.
- 37) Champman, N.J. & Beadet, M., “Environment Predictor of Wellbeing for At-risk Older Adults in Midsized city”, *Journal of Gerontology* vol.38, 1982, 237~244.
- 38) Duvall, E.M. & Miller, B.C.,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6th,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85.
- 39) Edwards, J.N. & Klemmack, D.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28, 1973, 497~502.
- 40) Glenn, 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Postparent stage: Some Evidence from National

- Survey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7, 1975, 105~110.
- 41) Gordan, M., *The American Family: Past, Present and future*, N.Y.: Random House Inc, 1978.
- 42) Keith, D.M., "Life change an Perceptions of Life and Death among older Man and Woman", *Journal of Gerontology* vol.34, 1979, 870~878.
- 43) Lawton, M.P.,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A Revis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30, No.1, 1975, 85~89.
- 44) Lee, G.R., "Age at marriage and marital satisfaction: A multivariate analysis implication for marital satisfactio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9, No.3, 1977, 493~504.
- 45) Lopata, H.Z., *Widowhood in an American City*, Cambridge, Mass: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Inc, 1973.
- 46) Matthew, S.H. & Sprey, J.,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grandparents: An Empirical contribution to conceptual clarifica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40, No.5, 1985, 621~626.
- 47) Medley, M.L., "Marital Adjustment in the Post-retirement Years", *The Family Coordinator*(Jan.), 1977, 5~10.
- 48) Rollins, B.C. & Cannon, E.L.,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6, No.2, 1974, 271~282.
- 49) Quinn, W.H.,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5, 1983, 57~73.
- 50) Streib, G.F. & Beck, R.W., "Older Families: A decade review",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2, 1980, 937~956.
- 51) Sussman, M.B.,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 edited by sussman , M.B. and Suzanne K. Steinmetz-New York: Plenum press, 1987.
- 52) Thomas, J.,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Grandparenting", *Journal of Gerontology* vol.41, No.3, 1986a, 417~423.
- 53) ———, "Gender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Grandparent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Aging* vol.1, No.3, 1986b, 215~219.